■6·2 지방선거 이후 호남정치의 길을 묻다

김효석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지역주의 깨진 건 잘된 일…새 리더십 절실"

민주당의 차세대 리더로 주목 받아왔던 김효석 의원(담양·곡성·구례)이 그동안의 장고(長考)에서 벗어나 '뉴 민주당 건설'을 기치로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권도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정책연구원장과 전남도당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 의원의 도전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변화와 쇄신'이라는 민심의 흐름과 맞물려 민주당 당권 구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오만 그리고 독주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도 변화해야 살 수 있다는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이며, 민주당이 준비하고 변화한다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되는 현상이 있다면.

▲정치권의 오래된 병폐였던 지역주의 붕괴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 변화를 꼽을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44.5%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야권 단일

지도부 '투쟁 일변도' 전략으로

오히려 민주당 입지 약화 시켜

후보였던 무소속의 김두관 후보가 경남지사에 당선됐다. 여기에 경북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10% 후반대의 지지율을 얻었으며 광주와 전남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들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는 지역주의에 기대는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민심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실천 가능한 공약, 민생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정치 등이 득점 포인트로 나타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정치·이념적 지지보다는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의 전략 변화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민심은 민주당에 싸늘했다.

▲공천 방법과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민심은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무조건적인 민주당 지지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인물과 정책 비교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현상은 바람직하며, 시대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지역 민심을 아픈 회초리로 받아들여 보다 겸허한 자세로 소통의 확대에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무기력과 호남 위기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소수 야당으로 한계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아예 야당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 체제하에서 체감하는 '호남 위기론'은 군사정권 시절 이상이다. 호남위기론은 근본적으로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폐기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공직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역 경제도 '겨울 공화국'을 맞고 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다. 많은 방법론이 있겠지만 결국은 힘의 문제다.

반성과 쇄신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모으고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 요구되는 것은.

▲과감한 쇄신과 변화를 통해, 민주당을 민심과 시대정신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인지'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주의, 기회주의, 투쟁 일변도의 낡은 리더십에서 벗어나 시대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현대화된 리더십이 절실하다. 적극적인 외연확대를 통해 가능성과 희망이 있는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

-현 지도부에 대한 평가는.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낡은 리더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 내외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의사결정 및 당 운영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다. 여기에 투쟁 일변도의 전략은 오히려 민주당의 입지를 좁혔다. 이러한 리더십으로는 민주당의 재집권을 현실화 시킬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당권 도전을 검토하게 된 계기는.

▲지난 대선 및 총선 패배 이후부터 고민해왔다. 민주당에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년 동안의 노력 끝에 '뉴 민주당 플랜'을 완성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지 못하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결국,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에 지친 민심이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기에 이른 것이다. 민주당은 기회를 부여한 민심에 '정권을 다시 맡길 만하다'는 안정감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이상 낡은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젊은 세대부터 어르신까지 아우르고 시대와 소통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이다.

▲계파, 지역 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낡은 리

변화와 쇄신 위해 '당권' 도전

호남의 자존심 DJ 맥 잇겠다

더십이다. 특정 계파의 도움이나 연대를 통해 당권을 잡을 생각은 추호도 없다. 변화와 쇄신, 희망과 비전을 통해 민주당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후보가 당권을 잡아야 민주당이 희망이 있다. 내가 당권을 잡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견인할 수 있는 민주당 건설이 과제다. 올해 초반 뉴 민주당 플랜의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당원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다. 이러한 당원들의 요구는 차기 전당대회에서 거대한 파도를 형성할 것이다.

-지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호남 정치권은 정치적 공백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지역민들도 상당한 정치적 상실감을 느꼈을 것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그동안의 성원으로 중진 의원으로 성장하게 됐다. 호남의 자존심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인 DJ의 맥을 이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지켜봐 달라.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 3년 연속 예결위 배정

'호남예산 지킴이' 기대 한 몸에

비례대표 초선 불구 '이례적'

곡성 출신으로 지난 2년 동안 광주·전남 예산 확보에 혁혁한 공을 세워온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또다시 국회 예결특위에 배정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번 국회에서 이정현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상임위를 배정하는 대신 예결특위에서 다시 활동하도록 하는 등 소속 의원 168명에 대한 상임위·특별위 배정을 마무리했다.

이 의원은 지난 상반기 국회에서 2년 동안 문방위와 예결위 및 예결위 소위위원으로 광주 U대회 특별법 제정을 비롯,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건설과 F1대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방위에 남아 결실을 보기를 원했지만 당 지도부의 조정에 의해 결국 법사위로 가게 됐다. 하지만,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결위와 예결소위 배정을 받아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애초 문방위와 예결위원을 동시에 신청했으나 당 지도부는 초선 비례대표이자 이미 2년을 활동했기 때문에 예결위 배정이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결국 '법사위를 가는 대신 예결위원과 예결위 계수조정위원을 시켜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 이를 받아냈다"고 말했다. 계수 조정위원은 국회 예산 심의 마지막 과정에 참여하는 의원들로 한나라당 의원 168명 중 모두 6명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유례없이 34만 표를 줬고 광주 14.2%, 전남 13.4%, 전북 18.2%라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줬다"면서 "한나라당이 더욱 진정성을 갖고 예산으로 호남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광주·전남 몫 비례대표 의원이 된 김소남 의원은 행안위에 배치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러 조사단, 천안함 北 소행 단정 못해"

日 신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정에 소극적"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 외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러시아 인테르팍스통신을 인용해 러시아 조사단이 천안함 선체를 비롯해 증거들을 모두 살폈지만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확증할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다뤄질 경우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일본 '지지통신'도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 "러시아가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로는 북한의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한국에 전달하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 결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사실이 7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일간 '더 힌두'도 러시아 외무장관이 "비극(tragedy)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러시아의 이 같은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일 홍콩 '봉황위성TV'는 러시아 전문가팀이 한국에 와서 어뢰 부품이 온전한 이유, '1번' 글씨가 선명한 이유 등을 물어보며 미국의 핵잠수함까지 있던 상황에서 북한 잠수정이 초계함을 공격 목표로 삼았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어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 4명은 지난달 31일 한국에 도착해 합동조사단의 조사 자료와 관련 증거를 살펴봤다.

이들은 언론과 접촉하지 않고 비공개로 활동하다 지난 7일 러시아로 돌아갔으며 러시아는 향후 2~3일 내에 전문가팀의 방한 보고를 마무리하고 최종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